

**Kyung-Hee Kim**

---

**From:** "육근철" <gdyuk@kongju.ac.kr>  
**To:**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uesday, August 22, 2006 5:04 AM  
**Subject:** Re: Re: Re: Re: Re: Re: how are you ?

김교수님께

잘 도착하셨다니 반갑습니다.  
 강의 평가에서 교수님 강의가 다시 듣고싶은 강의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감명을 받았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Torrance박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분이 걸어온길 특히 어린시절의 에피소드와 연구분야, 연구업적 등에 관해서요.  
 Torrance 박사에 대한 비디오 테잎도 있는것 같던데 구해줄수 있는지요 ?

선물이 깨졌다니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드리지요.  
 cramond 교수에게서는 잘 도착했다는 e-mail도 없네요.

앞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둘이서 청운교를 가지고 PEPC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데  
 제가 써서 보내면 수정해서 투고하실 수 있는지요 ?

그 다음에 무아레 무늬를 가지고 비교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집주소는  
 302-741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강변아파트 112동 306호  
 육근철

302-741  
 Kang-Byun Apt 112-306  
 Man-Nyun Dong So Gu Daejeon  
 South Korea

Keun Cheol Yuk

입니다.

자주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육근철 교수 드림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ue Aug 22 12:33:37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Re: Re: Re: Re: how are you ?

교수님께

저는 교수님께서 영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중국을 다녀온 후에 지금은 조지아에서 한국교사들을 연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닥터 크레몬드와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연수건이 먼저 급해서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유리로 된 것인지도 몰랐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완전히 어스러져 있더군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닥터 크레몬드와 이야기를 한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 선생님의 대학원학생이 저의 기차표까지 사시는 등 제게 얼마나 정성을 보이셨던지요. 그 교수님 밑에 그 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애써주신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에 보답드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Dr. Kyung-Hee Kim](#)

**Sent:** Monday, July 31, 2006 8:30 PM

**Subject:** Re: Re: Re: Re: Re: how are you ?

김교수님에게

잘 도착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포항에 내려가면 좋을까요 ? 그리고 가능하면 Cramond 교수를 우리집에 초대했으면 합니다. 가능한지요 ?

크레몬드 교수의 Cell Phone과  
김교수님의 Cell Phone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요.

주중에 안되시면 8월 6일 일요일에는 일정이 없으시니 제가 모시러 가면 되는지요 ?  
전화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셀폰은 011-424-5975입니다.

육근철 드림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mailto: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ue Aug 01 00:19:41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mailto: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Re: Re: Re: how are you ?

교수님께,

저희들이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저의 아들과 닥터 크레몬드는 대구로 막바로 가고 저와 제 딸은 갑자기 미대사관에 내일 들어 갈 일이 있어서 지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부쳤습니다.

김경희교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후 첫번째 박사논문을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두번째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여 세계적으로 창의력으로 유명한 토런스 박사가 재직하던 조지아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두번째 박사과정을 밟았다. 조지아에서 학업을 하던 중에 조지아 대학내의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발탁되어 조지아 주 내의 모든 주내 학력교사의 채점, 분석, 보고를 실시하였고, 한편으로는 조지아 대학내의 창의력연구소인 토런스센터의 국제 교육책임자로 일하면서 미국국내외의 많은 창의력연수를 주관하였다. 또한 조지아주내의 영재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토런스창의력 검사지인 TTCT채점자 연수를 실시하여 조지아 주내의 영재판별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004년에 국제심리학회인 ICP에서 연구논문 신인상을 수여한후 것에 연이어 작년 (2005) 에 영재교육의 분야에서의 중요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영재학회인 NAGC로부터 연구상을 수여하였고, 또한 창의력 분야에서의 중요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창의력학회인 ACA로부터 연구상을 수여하였다.

김교수의 저서는 현재 20편내외, 발표한 논문은 50편내외이며, 현재는 미국에서 사범대학으로 가장 유명하며 미국전역에서 매년 교사를 가장많이 배출하는 Eastern Michigan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Dr. Kyung-Hee Kim](#)  
**Sent:** Sunday, July 30, 2006 3:49 AM  
**Subject:** Re: Re: Re: Re: how are you ?

김박사님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정도 잘 받고요.  
제가 8월 2일이나 6일에 포항으로 내려가면 어떨지요.  
도착하시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력사항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는데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MS-WORD로 보내 주시던가요. 제 컴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것 아닌가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육근철 드림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mailto: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Sat Jul 29 22:31:50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Re: Re: how are you ?

한국에서 다른 몇 군데에서도 제 이력사항을 보내달라고 해서요. 영어로 된 것 아래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한것이 어설피다고 생각되시면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한국어로 된 것을 그냥 사용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한국에서 이력사항을 어떻게 쓰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방식대로 쓴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Dr. Kyung-Hee Kim](#)  
**Sent:** Saturday, July 29, 2006 5:05 AM  
**Subject:** Re: Re: Re: how are you ?

김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다음주에는 한국에 오시는것 같은데 이곳에서의 Cramond 교수와의 일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대구나 포항에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교수님의 강의는 8월 10일 10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강의 끝나고 같이 점심할 것입니다.

그 전에

Cramond 교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일정을 보내주시고, 교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력사항을 보내주세요.

특히 .Cramond 교수님의 일정을 자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육근철 교수

도착하시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1-424-5975입니다.

집 전화는 042-483-5975이구요.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ue Jul 11 10:24:20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Re: how are you ?

교수님께,

카리스트에서의 강의를 8월 9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은 하루 종일 시간이 남니다. 제가 점심 식사 대접을 하지요.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Dr. Kyung-Hee Kim](#)  
**Sent:** Monday, July 10, 2006 9:40 AM  
**Subject:** Re: Re: how are you ?

김교수님 반갑습니다.

8월 3일에 Cramond 교수님이 우리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할 수 없나요 ? 3일날 3-4교시나 5-6교시에 강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8월 10일날 3-4교시(10:50-12:30)에 김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수 있나요 있다면 하시면 어떻게 씁니까 ?

대전에 오시만 10일날 대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강의를 모셨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600명의 교사들이 들을 예정입니다.

답장을 기다립니다.

육근철 교수 드림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mailto: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Mon Jul 10 22:17:23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mailto: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how are you ?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런스 센터에 계시는 동안 이루신 것 이 많아서 제가 무척 기쁩니다. 제가 떠날 때여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해서 늘 조송스런 마음이었습니다.  
 교원연수원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아주 적합한 자격을 가지신 교수님께서 원장님이 되셔서 그 곳 교육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파일은 제가 열 수가 없습니다. 워드 닥이나 다른 것으로 저장을 새로 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먼저 크레몬드 박사님은 이번에 한국에 아주 짧은 동안 머무르시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할 수 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 30일에 저와 같이 미국을 출발해서 31일에 도착해서 8월 3, 4, 5, 7일 동안 포항에서 강의를 하고 8일날에 다시 미국으로 오셔야 합니다. 사실은 경북교육청의 강의를 8일 까지인데도 하루만 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8일날은 제가 혼자서 강의를 하고요. 그런데 설령 닥터크레몬드가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재까지 몇 년동안이나 닥터 크레몬드와 공동강의를 했지 한번도 제가 통역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은 외국강의자가 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고, 저는 닥터크레몬드가 한 내용을 한국 교사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8월 10일 또는 11일에 대전 카이스트에서 하루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한번 교수님 얼굴이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B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kyungheekim556@hotmail.com](mailto: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Monday, July 10, 2006 5:15 AM

**Subject:** how are you ?

안녕하십니까 ?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님 도움으로 무사히 방문교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지난 6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그 사이 PEPC(Program for enlightened and Productive Creativity) 일면 "팸시" 프로그램을 Cramond  
 소장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책도 한권 썼구요. 국내 특허도 하나 냈습니다. 많은 도움 주어서 고맙습니  
 다.

다름이 아니라, 귀국하자마자 교원연수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7월 1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ramond 교수님이 한국에 오시는 길에 특별강의로 모시려고 합니다. 한국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강의 제목은 창의성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통역은 김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

첨부와 같이 강의 요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시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료는 시  
 간당 25만원 입니다. 2시간 또는 4시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A,B 2개 반입니다. 그래서 1시간씩 2개반  
 총 2시간이 가능하고요. 또는 2시간씩 총 4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육근철 교수  
 011-424-5975



